

국제유가, 상반기에도 강세 지속

지경부, 석유화학은 신증설로 상승 제한적 ... 희토류는 급등

2010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2011년 상반기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식경제부는 1월5일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 및 기업의 대응>에서 “2011년 상반기 원유 가격은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당분간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나프타(Naphtha) 가격 상승과 중국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2011년에는 중국과 중동의 신규설비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화 약세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으로 2010년 6월 중순부터 상승 중”이라며 “희소금속은 중국의 수출쿼터 제한조치 등 자원무기화 움직임에 따라 희토류를 중심으로 급등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와 달러 캐리자금의 유입으로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희토류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생산이 2012년이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꾸준한 철강 수요의 영향으로 2010년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와 대규모 광산투자 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5>